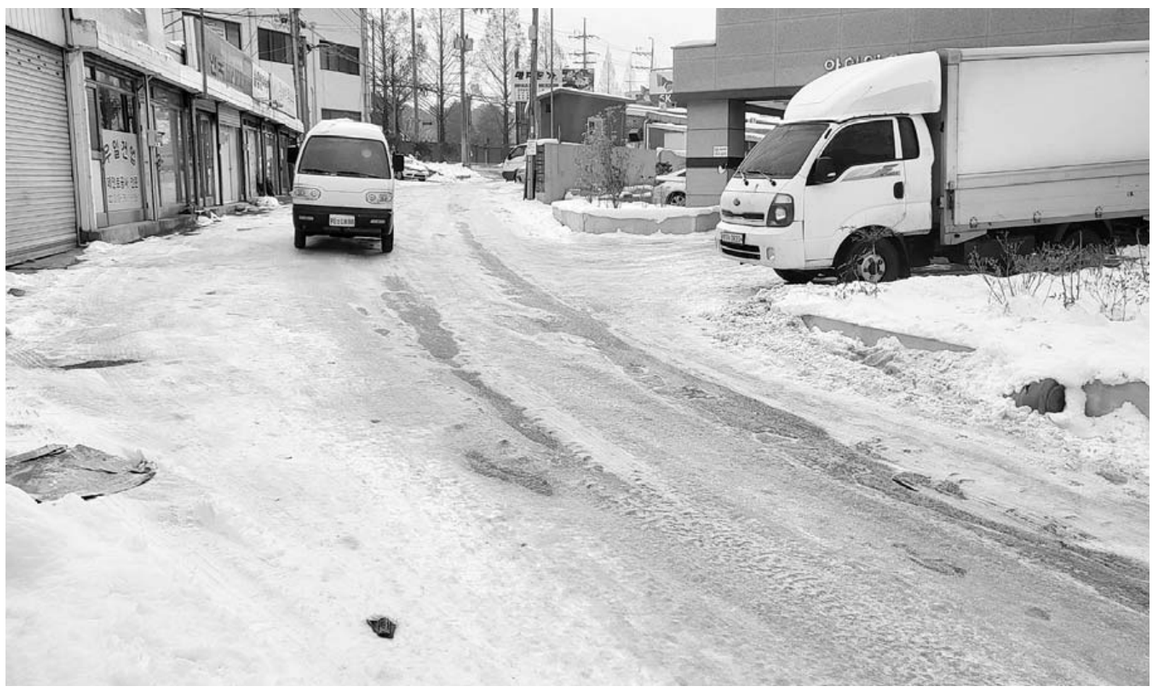
“눈 그친지가 언젠데”…얼어붙은 도로에 시민 ‘분통’

●이면도로·골목길 곳곳 ‘위험천만’ 빙판길

도로 옆 방치된 눈·더딘 제설 작업 속도 원성

지자체 “현실적인 어려움 커”…시민 참여 호소



최근 폭설로 광주 도심 이면도로·골목길 등이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로 347번길. /안재영 기자

“여기가 도로지 눈썰매장인가요? 이럴 거면 세금은 왜 낸담.”

폭설이 그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제때 치워지지 않은 눈 탓에 광주시내 이면도로·골목길·보행로 등이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설 작업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시민들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오전 찾은 광주 북구 서산초등학교 인근 우치로 257번길은 내리막길을 따라 쌓인 눈이 얼고 녹기를 반복해 ‘눈썰매장’과 다름없었다.

이 탓에 운전자들이 조심스레 서행해도 얼음과 눈에 바퀴가 빠지는 일은 불가항력이었다. 순간순간 바퀴가 헛돌아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더러 포착됐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 보행로도 치워진 눈이 수북이 쌓여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선 위험천만한 빙판길로 다녀야만 했다.

이같은 위험지대는 광주시내 곳곳에서 포착됐다.

광주 서구 화정동 23-22 일대의 내리막 빙판길도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어 시민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만 했다.

광주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도 광주공원 입구까지 군데군데가 얼어있는 등 제설 상태가 미흡한 곳이 지천이었다.

이를 보며 시민들은 행정 당국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 박모(52)씨는 “도로 상태가 이런데 이럴 거면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다”며 “위험천만한 빙판길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어 박씨는 “기록적인 폭설 탓에 사전 대비가 미흡했던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눈이 그친지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도로 상태가 계속 이 모양인걸 보니 지자체가 제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중장비와 인력을 대거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섰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은 민원 건수에서도 엿보인다.

28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제설 관련 민원은 총 1천99건 접수됐다. 집계되지 않은 유선상의 민원을 더하면 실제 접수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지자체는 중장비와 제설제 등을 투입하며 제설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각 자치구들은 ▲동구(제설장비 21대) ▲서구(자체제설장비 4대·굴삭기 27대) ▲남구(굴삭기 4대·5t 트럭 1대·1t 트럭 2대) ▲북구(굴삭기 6대·덤프 28대·로더 3대) ▲광산구(굴삭기 42대·덤프 1대) 등을 가용했다.

그럼에도 불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설 작업을 일시에 진행하기란 인력·예산·장비·업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 도로의 폭이 좁고 불법 주정차가 많아 장비 투입이 제한된다”며 “그런 곳은 수작업으로 제설이 진행되다 보니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규정상 도로의 눈은 치운 뒤 한 쪽으로 쌓아두게 돼 있다”며 “매립하려 해도 둘 곳이 마땅치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그렇게 치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해야 할 곳이 너무 많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행정 당국의 노력만큼 주민들 역시 내 집 앞과 거리 눈 치우기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안재영 기자

무자격 침·부항 시술 50대 항소심 벌금형

광주지법, 벌금 800만원 원심 유지·항소 기각

의료 자격증 없이 3년간 환자들에게 침과 부항 등을 시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1월말까지 전남 순천의 한 교정원에서 통증이나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부항, 뜸,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이같은 시술을 하고 환자들에게 2만-3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교정원에 구비된 시술 도구, 설비, 시술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의 정도가 중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도 약 3년으로 비교적 장기적이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실제 건강상 위험 발생 사례는 없었던 점을 감안해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복 기자

펌프카 작업대 낙하 사망사고 책임자 3명 검찰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 낙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펌프카 기사 A(59) 씨와 시공사인 두산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펌프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기계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 안전교육이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24일 오전 9시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가 꺾이며 지면으로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지 조사했다. /안재영 기자

헌재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합헌”

“익명성 따른 부작용 우려…책임성·건전성 확보 필요”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본인확인 조치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게시되면 게시판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인확인 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관리자가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 같은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과거 공공기관뿐 아니라 하루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게시판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해당 조항은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성탄절 실종된 8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영광 실종 90대 치매 노인 수색 중

성탄절에 실종된 8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자택과 2㎞ 떨어진 마을 뒷산 풀숲에서 A(81·여)씨가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A씨가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던 길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A씨가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께 집을 나서 해당 길로 걸어가다 해가 지고 날이 추워지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영광에서도 지난 27일 실종된 90대 치매 노인 B씨를 이틀째 수색 중이다. /오복 기자